

AUTHOR 이형기

TITLE 16세기 종교개혁시대의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요리문답 교육에 대한 연구

IN 교회와 신학

vol.28 (April, 1996): 242-261

16세기 종교개혁시대의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요리문답 교육에 대한 연구

이 형 기
(교수·역사신학)

1. 서론

지난 번 「장신논단」에서 본 필자는 “신약성경”과 “고대교부들”에 나타난 새신자 혹은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요리문답 교육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즉, “제I장 : 신약성경에 있어서 복음설교와 가르침(교육)”에서 사도들과 원시 기독교공동체가 복음설교(Kerygma) 뿐만 아니라 가르침(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제II장 : 고대교회의 세례후보자 교육”에서는 세례신조인 사도신경과 이단들에 대응하여 생긴 신앙규범(regula fidei) 및 신약성경의 경전화가 모두 세례후보자와 신자들의 교육을 삶의 자리로 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고대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의 설교와 성만찬 이외에 세례후보자들의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했나를 논했다.

이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주로 루터와 칼빈) 역시 예배하는 공동체의 복음설교 이외에 요리문답 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 설교, 세례, 성만찬을 은총의 주된 통로로 보며, 특히 이중에서도 설교를 강조하는 루터와 칼빈이 각각 「소요리 문답」(1529)과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1541)을 썼고, 개혁교회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8)은 개혁주의 요리문답의 고전으로서 너무도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세례후보자 및 새신자교육을 위해서

고대교회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만큼 힘쓰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하겠다. 인구의 1/4정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왜 그렇게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차원에서 왜 그렇게도 부족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례후보자들의 교육을 비롯한 기독교 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필자는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등 현대적인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리문답 교육지침서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번 논고에서는 지면 제한으로 이것을 실을 수가 없어서, 다음 「장신논단」으로 넘길 계획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본 필자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독자는 지난 번 「장신논단」과 이번 「교회와 신학」에 실린, 그리고 다음 번의 「장신논단」에 실릴 본 필자의 글을 모두 읽어야 할 것이다.

2. 루터의 「소요리문답」 (1529)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어 미사를 집행하면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고, 로마에 있는 바울성당의 “거룩한 계단”(scala sancta)을 오르며 자신의 죄를 날날이 참회, 고백해도 마음의 후련함이 없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을 받았고 사제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루터의 마음속에 왜 이처럼 답답하고 무겁기만한 먹구름만이 가득차 있었을까? 루터는 왜 그리스도를 “엄하고 무서운 심판자 혹은 사형집행인”(W.A. 38.148)으로 느끼곤 하였을까? 그 이유는 중세와 중세말의 율법주의 때문이었다. 중세말의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와 신비주의가 공로주의적 구원론을 지향했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구원론 역시 다분히 신·인 협동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교황을 피라미드의 꼭지점으로 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제가 7성례를 통해서 매개시켜주는 은혜, 수도원적인 삶의 이상, 및 죄에 대한 형벌을 돈으로 환산하는 면죄부 판매 등으로 말미암아 생애는 기쁨과 강 같은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

루터의 공헌은 福音의 재발견과 이신칭의의 경험에 있다. 루터는 시편을 강의(1513~1515)하던 중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였고 (“답의 경험”), 로마서 강해

(1515~1516)를 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더 분명히 경험하였고, 결정적으로 갈라디아 주석(1519)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며 이신칭의를 경험하였다. 루터는 1545년 그의 라틴어 작품들을 위한 서설에서 그가 1519년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경험한 바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나는 거듭 태어남을 경험하였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후로 성경 전체가 온통 다르게 보였다.²⁾

위와 같은 “복음의 재발견”과 “이신칭의”의 경험 때문에 루터는 “복음”을 성경의 중심으로 보았다. 루터는 4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였고 특히 이 복음은 선포되었던 것으로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사도들이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복음서 기자가 4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의 복음이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특히 그의 죽음(십자가)을 통해서 성취되고 획득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이란 본래 신약성경의 책들 안에 갇혀 있거나 문자 안에 속박되었던 것이 아니라 구두로 외쳐졌던 선포였고 살아 있는 말씀이었고 울려 퍼졌던 음성이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³⁾

1) 이형기: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6집(1990), pp.241~243. 여기에서 필자는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이 성경의 주제라는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취급하였다.

2) “루터의 라틴어 저작 전집서문(1545)”, 루터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 이형기 역(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48.

루터의 복음 이해는 대체로 사도 바울의 복음선포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수(the word of God)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복수(the words of God)로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말씀이란 성육신하셨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칭의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영혼은 설교의 메시지를 수용해야 구원을 얻고, 오직 신앙만이 구원의 효험을 일으킵니다.⁴⁾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位格)과 사역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나의 내용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 루터는 신약성경에서 재 발견한 복음을 성경전체의 중심주제로 보고 이 복음을 구약해석의 열쇠로 삼았다. 그의 복음이해는 중세의 율법주의를 경험하는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이미 그의 복음이해는 성경 안에서 율법과 구별되는 내용으로서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접할 때,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읽었고, 이 양자의 역동성을 경험하였다.

루터는 성경의 중심주제를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경전 안에 경전”(Kanon in Kanon)을 주장한다. 루터는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듬뿍 포함하

3) Commentary on Peter and Jude, pp.9f. 재인용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ed. by Hugh T.Kerr(The Westminster press, 1956), p.10.

4) “A Treatise on Christian Liberty” Works of M. Luther, vol.2 (Philadelphia: the united Lutheran publication House, 1915-1932), p.455.

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바울의 서한들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같은 요한의 글, 그리고 베드로전서 등을 성경의 주된 책들(Hauptbücher)이라 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즉, “복음”이 경전인 성경 안에서 “경전”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루터는 성경의 영감을 주장하며 그 유명한 “sola Scriptura”로 주장하면서도 이 성경의 중심주제로 “복음”이라 보았던 것이다.⁵⁾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설교(Kerygma)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루터는 본래 선포되었던 “복음”이 교회의 강단에서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였다. 루터는 설교된 말씀이 성경(특히 N.T.)이 기록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설교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역설하였다. 루터는 교회를 “입의 집”(Mundhaus)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책들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들은 반드시 말해져야 하고 경청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사도들도 글로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새 언약의 교역은 죽은 돌비에 적혀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 있는 음성에 있다.⁶⁾

이상에서 언급한 루터의 복음의 재발견과 구원의 경험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에 처음 나온 수세 이전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강단에서 설교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와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하나님 존전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사건이 수세 이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5) 이형기, op.cit, pp.248-249.

6) W.A. 5. 537. 10

루터는 1529년 「大·小요리문답」(Larger and Smaller Catechisms)을 썼다. 1526년 이래로 독일의 루터교는 크게 확장되면서 영주국별, 혹은 지역별 루터교회들(territorial churches)이 되었으나, 이같은 상황에서 루터는 그 많은 “복음”의 재발견과 구원론에 입각한 새로운 루터교 신학의 기본 사항들을 새로운 루터교 신자들을 위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중세 교회가 소홀히 여겨 왔던 「대요리문답」(The Large Catechism)을 저술하였고, 어린이들과 평신도들을 위해서 「소요리문답」(The Small Catechism)을 썼다.

루터는 1527~1528년까지 작센 지방의 교회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지방 전체를 시찰하는 동안 이 지역의 평신도들은 물론 교역자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하여 대단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대·소요리문답」을 썼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고,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가르치기에 전혀 무능하고 적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생각이 되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만찬까지 받고 있었으나, 이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혹은 십계명도 몰랐고 마치 돼지나 물이성적인 야수같이 살고 있었다. 이미 복음이 회복된 이 상황에서 이들은 자유를 남용하는 묘기를 완전히 터득하였다.⁷⁾

루터는 그의 「소요리문답」⁸⁾에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성례, 죄의告白과 사면, 성만찬, 아침과 저녁기도, 식사기도,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다루었고, 「대요리문답」에서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논하되 그 양을 소요리문답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확장시켰다. 루터는 이 두 요리문답의 내용을 1528년을 전후로 해서 비텐베르크에

7)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Lutheran Church* by Theodore G. Tappert(Philakephic: Fortress Press, 1959), p.33.

8) 본 요리문답은 콘코디아사가 이미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서 행해진 십계명에 대한 설교, 사도신경에 대한 설교에 근거시켰다. 루터는 결국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는 교역자들을 위한 요리문답을, 다른 하나는 어린이와 평신도를 위한 요리문답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루터는 그의 「소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먼저 다룸으로써 율법의 교발적 기능 혹은 문해선생적인 기능을 통하여 세례후보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인식을 촉구하고, 그 다음 “복음”에 해당하는 사도신경 풀이를 통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소개한다. 그리고 구원(이신칭의) 얻는 사람으로서 루터에게 있어서 은총의 수단은 “복음설교”와 “성례전”(세례, 성만찬)이다. 이 둘은 교회의 사도적 표지(標識=notae ecclesiae)이기도 하다. 「아옥스부르크 신앙告白」 제VIII항목 그러니까 복음설교를 듣고 성령의 사역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이신칭의 얻은 화심지는 세례후보자를 위한 「소요리문답」으로 교육을 받은 후 세례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서 논할 칼빈에 관하여도 사실이다. 대체로 이것은 개신교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서 성만찬에 참여하며 평생토록 윤리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3.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1541)

칼빈은 프랑스의 왕인 프란시스 제1세가 당시 복음주의자들(루터 계통의 복음주의자들과 쾰빙글리 등 개혁주의자들)이 기성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좌경화 종교개혁자들로 오해를 받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고 이들이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초판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내놓았다. 칼빈은 그의 초판 「기독교 강요」서론에서 프란시스 1세에게 주는 글을 실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실천적인 저술 동기와 목적을 밝혔다.

“본서는 기독교의 기본교리, 곧 경건한 삶의 총화와 구원론의 총화이다. 새로 출판된 본서는 경건한 삶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읽혀질 가

치가 있다. 노이옹의 칼빈은 본서의 저자로서 이것을 신앙告白으로서 프랑스의 크리스찬 왕에게 바치노라”⁹⁾

칼빈은 이중적인 목적에서 본서를 저술하였다. 하나는 복음주의의 교리적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란시스 1세의 박해를 만류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을 요약하는 글들은 이미 칼빈 이전에도 나왔으니, 멜랑히톤의 「Loci Communes」(1521), 쾰빙글리의 「Commentarius de vera et falsa religione」(1525) 및 파렐의 「Sommaire」(1534)가 그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1536년 파렐의 강한 권유로 제1차 제네바 종교개혁에 착수하면서 평신도들을 위하여 그의 초판 「기독교 강요」를 축약시켜 1537년 프랑스 말로 「신앙교육」 「Instruction in Faith」이라는 작은 책자를 내놓았고, 1538년 바젤에서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기독교의 요리문답 혹은 교육」(Catechism or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쉽고 간결하게 펴냄으로써 당시 혼란과 무지 가운데 있는 제네바 시민을 교육시키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제네바에서 약 1년 동안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결국 슈트라스볼크로 퇴진하여 1538년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보다 심도있는 제2판 「기독교 강요」를 썼고, 이곳에 3년을 머문 후 다시 제네바에 들어가 종교개혁을 다시 시도하면서 1541년에 그 유명한 「제네바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을 썼다.

본 「제네바 교회를 위한 요리문답」은 1537년에 나온 「Instruction in Faith」를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문답식으로 만들었다. 문답은 모두 373장으로서 매주일 어린이들과 평신도들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렌스는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의 주 목적은 고대 보편 교회의 세례후보자 교육을 회복하며,

9)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신대출판부, 1988), pp. 263~264.

10~15세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적합하도록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여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일치될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내용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데 있다.”¹⁰⁾

본 요리문답(1541)의 부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문답식 기독교 교육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그 부제는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된 어린이 기독교 교육 지침”(A Formulary of the Instruction of Children in Christianity in the Form of a Dialogue in church the Minister interrogates and the Child responds)이라 되어 있다. 칼빈은 본 요리문답의 서론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기독교교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가 각별히 추천해 온 일이다. 이 일이 수행되기 위해서, 일찍이 학교들도 생겼고 가정들에게 어린이 기독교교육이 요구되기도 했으나, 교회들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조항들(articles of faith)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의 공적인 실천이었다. 이 일을 질서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요리문답’(a Catechism)이라 일컫는 지침서(a formulary)가 사용되어야 한다.”¹¹⁾

칼빈의 본 요리문답은 4부분으로 되어 있다.

1. 신앙 :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예배에 대하여 짧게 문답한 다음, 사도신경 모두를 해설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구성했다.
2. 율법 :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문답화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10) *The School of Faith :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tr. .ed. by Thomas F.Torance (London : The Camelot Press, 1959) pp.3~4

11) Ibid.p.5. 본 <요리문답>은 스코틀랜드 교회용으로 쓰여진 것임.

의 예배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3. 기도 : 주기도문 해설인데, 앞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4. 말씀설교와 성례전(세례, 성만찬) : 이 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고, 우리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다.

칼빈은 루터와 그 니앙스를 달리하여 율법의 고발적인 기능을 앞에 놓지 않고, “복음”과 “신앙” 그리고 예배를 제일 먼저 놓았다. 그리고 난 다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배)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놓았다. 이는 루터의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칼빈의 “복음과 율법”의 구조를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그 다음에 오는 주기도문은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에서 이어 이 같은 신앙과 율법이 더욱 풍성히 성장하고 확장되어가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칼빈은 말씀설교와 성례전을 예배의 두 수단으로서 은총의 수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로 보았다. 특히, 칼빈은 위의 4가지 요소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구축하는 것들로 보고 있다.

우리는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이 성경의 주제요, 기록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설교라는 사실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이 복음이 항상 다시 설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sola Scriptura”에 관하여 말했다. 그리고 루터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복음설교 이외에 그의 「대·소 요리문답」(1529)을 통한 교리교육을 어린이들과 평신도들은 물론 교역자들에게도 각각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칼빈의 경우도 루터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칼빈이 기록된 말씀을 더 강조하고, 말씀을 성령과 보다 더 긴밀히 연결시킨 점을 제외한다면) 즉, 칼빈 역시 “복음”을 성경의 주제로 보고, 복음설교가 오늘날의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다시 반복되어야 하며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sola Scriptura”로 주장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복음설교 이외에 그의 「재배바 교회의 요리문답」(1541)을 통한 어린이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요구하

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끝으로 칼빈 역시 설교를 강조했고, 복음을 성경의 주제로 보았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칼빈은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롬 10:17)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설교)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를 인용함으로 복음 설교와 구원신앙을 연결시켰다. 칼빈은 “복음설교”를 듣고 사죄를 얻는다. “죄인이 사탄의 굴레와 죄의 멍에서 해방되고, 모든 악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로 옮겨진다.”(III.iii.1)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설교를 아무리해도 소용없다. 우리 속에 계신 스승,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길을 열어 주셔야 설교말씀이 들린다. ... 확실히 성령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능하다. (II.ii.20)

칼빈은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 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I.vii.4)고 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친히(in persona)말씀하신다.”(I.vii.4)고 했으며,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성경에 의존한다.”(I.vii.5)고 했다. 칼빈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성경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 있는 것이 된다. 바울이 성경의 신적 영감을 주장할 때 그가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¹²⁾

12) 재인용 W.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Michigan : Baker House.1980), p.36.

끝으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라고 보았다. 그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신다.”¹³⁾고 말했다고 “성경을 읽는 주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려는 데 있다.”¹⁴⁾고 했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이 성경의 유일한 목표(scopu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¹⁵⁾고 주장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목표에서 빗나가면 길을 잃고 헤매일 것이다.”¹⁶⁾

칼빈은 설교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과 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I.ix.3)

루터와 칼빈 모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A.D.381)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와 칼세돈 공의회(A.D.451)의 예수 그리스도 교리를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A.D. 170년 경 로마교회의 세례신조(Symbolum Romanum)에서 유래한 사도신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십계명과 주기도문 및 어거스틴 이래로 교회의 주된 은총의 수단인 세례와 성만찬을 함께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주제인 “복음”과 영감된 “sola Scriptura”와 예배하는 공동체에서의 “복음 설교” 이외에 세례후보자들과 세례 받은 초신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리교육에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소요리 문답」(1529)을,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1541)을 각각 저술하였던 것이다.

13) Calvin, Commentaries, C.C.C.(1950), p.104.

14) Ibid.

15) Ibid., p.112.

16) O.S.3, 6, 24. Niesel, op. cit., p.26.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¹⁷⁾

- 저자 : 본 요리문답은 독일의 팔레티네이트(the Palatinate)주의 영주였던 개혁주의 계통의 프레데릭 3세의 주도하에서 우르지누스(Ursinus)와 올레비아누스(Olevianus)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두 저자들은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하는 독일 사람으로서 개혁주의 신앙전통을 고수하던 중 추방되었다.

우르지누스는 본 요리문답의 주된 저작자로서 비텐베르크에서 7년 동안 멜랑히톤으로부터 수학하였고, 불링거와 순교자 피터, 제네바의 칼빈과 베자 등을 친히 알았으며, 이들과 학문적 교류도 빈번히 가졌다. 그러던 중 1560년 팔레티네이트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로 호게 되었다. 올레비아누스는 파리, 부르주, 오를레앙에서 고전어를 배웠고 제네바와 취리히에서 신학을 배웠다. 그 역시 우르지누스처럼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그는 복음주의를 전파하였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가 1560년 역시 프레데릭 3세에 의하여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로 초빙되었다.

그런데 이곳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루터신학, 멜랑히톤신학, 칼빈신학, 나아가서 쾰빙글리 신학이 공존하면서 신학논쟁을 벌이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레데릭 3세는 여러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택한 최초의 독일 영주였다. 본인 스스로가 개혁전통을 사랑하는 이 영주는 어느 정도 루터적이고, 멜랑히톤적이며, 불링거적 요소를 지니면서 주로 칼빈신학을 지향하는 요리문답을 작성케 하였다. 이는 단순히 팔레티네이트주의 개신교적 통일이라는 프레데릭의 정치적 의도 이전에 프레데릭 자신의 개혁신학적 확신에 기인하였다. 사실상 두 저자는 칼빈, 라스키(Lasky) 및 불링거의 요리문답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 성격과 목적 : 본 요리문답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회의 신앙告白

이요, 다른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리 교육이었다. 본 요리문답은 개혁교회의 모든 요리문답 중에서 가장 탁월하며,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告白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catholic)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 요리문답을 대단히 귀한 개혁주의 유산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본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이중에정교리와 같은 주관적인 칼빈주의는 제외시키고 루터와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의 복음선포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샤프(Philip Schaff)는 이렇게 말했다.

제1문답은 기독교의 진수를 복음적이고, 실천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측면으로 묘사한다. 즉, 기독교는 명령이나 율법이나 지적체계나 외적인 준수들 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중심으로 하는 바, 이 선물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평화와 위로의 유일한 원천이다.¹⁸⁾

본 요리문답은 이미 우리가 논한 루터의 「소요리문답」(1529)과 다음에 논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8)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루터의 것이 이 셋 중에서 가장 교회적이고, 보편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성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은 다음 3가지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648)보다 우월하다.

1) 이 둘은 사도신경을 교리적 해석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그것을 부록에 실고 있다.

2) 이 둘은 주체적이고 경험적인 응답을 요구하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객관적이고 추상적 명제로 된 대답을 실고 있다.

3) 이 둘은 생동감 넘치는 언어요, 따뜻하고 직선적인 언어로 사용하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스콜라주의적 교리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사건 직후인 16세기의 신앙

17) 이형기, 세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총회출판국, 1991), pp.73~108.

18) Philip Schaff, The History o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1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90), p.54.

과 신학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소산이다.¹⁹⁾

— 내용구조 및 내용분석 : 본 요리문답은 로마서의 내용구조를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I. 人間の 비참(문 3~11, 롬 1 : 18~3:20)
- II.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문 12~85, 롬 3 : 21~11 : 36)
- III.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 혹은 기독교인의 삶(문 86~129, 롬 12 : ~ 16 :)

이 세 가지는 성경의 요약이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들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요소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 인간의 비참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십계명에 비추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말하고 구속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한다.
- II. 구속 : 仲保者시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복음)를 통한 구속과 이에 대한 신앙에서 오는 위로를 다루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해설하고 이어서 말씀설교와 성례전(세례, 성만찬)에 대한 문답으로 되어 있다.
- III. 감사 : 제II항목에서 이미 다룬 “복음”과 복음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한 감사로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뜻에서 십계명 풀이와 주기도문 해설이 이어진다.

위의 3가지 요소들은 루터의 「소요리문답」(1529)과 칼빈의 「제네바교회를 위한 요리문답」(1541)을 자기 것으로 하고 있으며 멜랑히톤과 쾰링클라 및 불링거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본 요리문답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고, 모두 129문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 Ibid. p.543.

그 내용을 1년에 해당하는 52주의 몫으로 나누었다. 특히, 각 문답에는 해당되는 성경구절들이 전거로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개혁교회의 전통에는 이 항목들을 매주 설교를 했다는 역사도 있고, 예배 이외의 시간에 이 항목들을 매주 교육했다고 하는 역사도 있다. 아마도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교리교육 자료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그 전체의 내용 구조가 명쾌하고 간결하다는 사실에 있다. 즉 교역자들은 I.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문답해야 하고, II. 복음과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내용으로 제시해야 하고, III.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5.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648)²⁰⁾

— 중요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大小 요리문답은 영(특히, 스코틀랜드)미 계통 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용되어 왔다. 1967년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앙고백집」(The Book of Confessions)에 포함되었고, 1983년 북 장로교와 남 장로교가 연합할 때에도 재 일치를 위한 신앙문서에 내포되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소개로 사용돼 오다가 1967년 미국 연합 장로교회의 「1967년 신앙告白」이 우리 나라 장로교회를 사이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196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을 재확인하여 받아들인 바 있다. 그리고 1986년에 채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告白서」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본 신앙告白과 요리문답은 그것이 작성된 영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19세기 미국에 의해서 선교된 나라들의 장로교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1729년 미국의 장로교회는 정식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채택하되 모든 목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었고, 1648년에는 매사추세츠 주 베이콜로니아의 회

20)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pp.330~34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本文해석이 소개되어 있음.

중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정치를 고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고, 1707년 침례교인들이 자기들의 교회정치를 성인세례를 제외하고 본 웨스트민스터 교리 표준을 받아들여 필라델피아 신앙告白을 작성하였으니, 이것이 1742년에 정식으로 침례교 교리표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893년부터 1927년까지 본 교리 표준서는 미국 장로교의 토양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렸다. 그러던 중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브릭스 교수 사건 이래로 1927년 경에는 미국 장로교 총회가 그 동안 본 신앙告白이 지녀 온 총회적 차원의 구속력을 풀어놓았다.²¹⁾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갈라져 나가면서 미국 장로교회 내에는 신 정통주의 및 보다 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장로교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노선을 고수하는 보수파 장로교로 갈등해 오다가 1983년에 이룩된 남·북 장로교회의 재일치의 열매로 나온 「A Brief Statement of Faith」(1990)에서 신학적 갈등의 해소를 경험하였다.

— 역사적 배경과 작성과정 : 영국은 헨리 8세(1530년대) 이후 왕조가 종교의 향방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예컨대 헨리 8세를 뒤이은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 성향이었고, 그 다음 피의 여왕인 메리는 개신교를 악랄하게 박해하였으며, 엘리자베스 1세는 감독교회(영국국교)를 지향하면서도 개신교에 대하여 충분한 관용을 베풀었다. 그런데 메리 여왕 때에 대륙으로 피난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신학을 배워 귀국했으니, 주로 이들이 영국의 퓨리탄들을 칼빈의 신학과 개혁교회적 교회정치와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는데, 차츰 회중교회 등 보다 폭넓은 영국의 개신교를 구축해 갔다. 바로 이들 퓨리탄들은 제임스 1세를 거쳐 찰스 1세에 이르러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1640년대 초 올리버 크롬웰의 퓨리탄 혁명의 성공으로 결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협조를 얻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1648년 국회가 이것들을 승인하였다.²²⁾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두 개의 요리문답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대요리문답」이

요, 또 다른 하나는 「소요리문답」이었다. 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보다 더 긴 것으로 목회자들이 매 주일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작성되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書로 작성할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대요리문답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書」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은 청소년들과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대요리문답」의 간결한 요약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국회는 1649년에 이 두 요리문답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널리 사용토록 하였다.²³⁾

우리의 관심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요약임으로 우리는 후자의 내용구조를 소개함으로써 전자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

1.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 a.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作定, 창조, 섭리, 생명의 계약,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인간의 형벌
- b. 은혜의 계약,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계약의 仲保,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기도 및 재림
- c. 그리스도의 仲保에 의하여 획득된 은혜들(Benefits),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이 은혜들, 교회, 효과적 부름, 칭의, 양자, 성화, 확신(Assurance), 은혜와 영광에의 참여, 종말론

2.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의무들

- a. 도덕법, 중생한 자들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이 도덕법의 사용,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
- b. 그리스도께서 그가 仲保하신 은혜(Benefits)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 : 말씀설교와 성례전과 주기도문²⁴⁾

21) Ibid. pp.299-300.

22) 이형기, pp.300-303. : 역사적 배경에 관한 자세한 것을 소개하고 있음.

23) *The School of Faith :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tr. and ed. by Thomas F. Torrance (London : The Camelot Press, 1959)

위의 내용구조는 첫 머리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제일되는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말한 다음,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告白書」의 주장에 근거

1)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2)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의무들을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로 잡았다. 토렌스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간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본 소요리문답은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문답들 가운데 가장 긴 것이고 주로 구원을 받아들이 자기것으로 만드는 일과 기독교적 삶에 관심하고 있다. 이 문답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고 대요리문답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다루었으며 소문답서로서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윤리적인 색채가 너무 짙다하겠다. 그리고 이 대소요리문답은 모두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 종교에 관심하고 있다.²⁴⁾

5. 세례후보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리문답 교육 지침서 시안

우리는 루터의 「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 세 가지 항목의 각각에다가 세분화된 질문과 대답을 나열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I. 죄인식

II. 복음신앙

III.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

우리는

I. “죄인식” : 인간이 성경과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하고,

II. “복음신앙”에서는 복음신앙에 의한 이신칭의, 복음과 성경의 관계, 복음신앙과 성경적 증언에 근거한 기독교적 신앙告白(칼세돈의 기독교론, A.D.451)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告白(니케아-콘스탄티노플, A.D.381) 및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III.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대표되는 기도의 항목들과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대적 실현을 논해야 하겠다.

24) Ibid. p.XV.

25) Ibid. p.xvi